

01 목회권면

모든 성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와 광주시의 권면 사항을 지키면서 예배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입장 전, 비접촉 체온계(발열체크기)로 증상(발열, 기침, 인후염) 유무를 확인
-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
- 교회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 후 입장
- 비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예배당 좌석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 예배 전, 후 교회에 소독을 실시
- 예배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향후 확진자 발생 시의 역학조사에 대비하여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명단은 제출할 필요가 없이 자체 관리하며,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반에 제공합니다.
-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중단합니다.

02 종려주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03 성례식

2020년 상반기 유아세례,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코로나로 인해 추후 공고하겠습니다.)

04 온라인예배

온라인예배 가이드를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제일명성교회 교인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각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예배는 11시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예배는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예배시간에는 예배당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예배시간에는 예배당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예배시간에는 예배당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예배는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예배시간에는 예배당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예배시간에는 예배당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예배시간에는 예배당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4월 5일 종려주일
2. 해외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4월 6-11일 고난주간(10일 성금요일)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4월 12일 부활절
4. 바나바 사역과 새가족 정착을 위하여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부목사 문성우, 박순영
- 전도사 김상태, 장중현
- 원로장로 최진호
- 은퇴장로 석용문, 윤동섭
- 시무장로 박인순
- 지휘자 한경민, 윤정민, 강신모
- 반주자 하은미, 박은영, 김병준, 김슬기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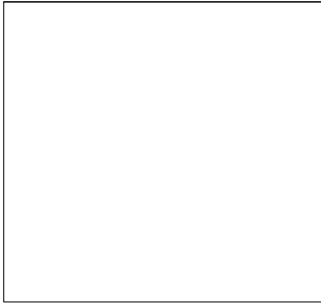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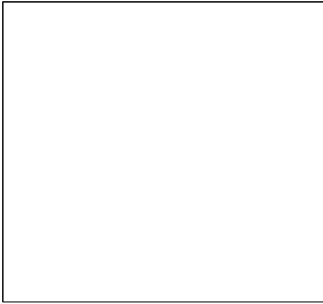
4월 5일
7권 14호

* 여는 찬 양	주 기도문		
* 예배 선포	인도자		
* 찬 송	9장		
* 공동기도문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88 장		
교회소식 새가족환영	인도자		
오늘의말씀	눅23:39-43		
찬 양	문지연	손막동	김정인
오늘의말씀	<p style="text-align: center;">“구원의 길 십자가” 윤호식 목사</p>		
봉 헌	144 장		
* 친 교	다 같이		
* 송 영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 축 도	윤호식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오후2시

오후7시



4/6(월)	
4/7(화)	
4/8(수)	하루목상말씀 카톡, 문자로
4/9(목)	보내드립니다
4/10(금)	
4/11(토)	



■대표기도	1부	2부	3부	오후
-------	----	----	----	----

1. 월례회 및 각종 모임

각종 부서 월례회 및 모든 종류의 모임을 중단합니다. 특별한 자침이 있기 전까지 공모임 뿐 아니라 교회 내 친교 모임 또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봉사, 수요전도

■ 지난 주 등록

■ 1, 2 월 등 록 자		
신주희(한나여성교)	박선민(유니게여성교)	이미정(롯데여성교회)
최병주(4남선교회)	윤미란(유니게여성교)	김완수(3남선교회)
심주원(청년부)	진마숙(마리아여성교)	손미정(유니게여성교)

제 목: "예수나 바라바나"(막15:6-15)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예수와 바라바중 누구를 석방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당시에 민란을 주도한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바람과는 달리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쳤습니다. 당황한 바라바의 모습이 본문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쩡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의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며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를 풀어주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까 걱정하여 그는 15절에 서둘러서 선포를 내립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양심보다는 군중을 따랐습니다. 올바른 판단보다는 대중의 심리를 쫓았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끝났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순간 바라바는 영웅이 되어 사람들의 목말을 타고 석방되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창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대신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죽을 사람은 이삭인데 아무 죄가 없는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앞서 보았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희생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희생양을 이어받은 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를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요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벰전1:18-19 "너희가 알게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다수의 의견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인들은 하틀러의 뜻에 다수가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600만의 유대인의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모세에게 원망할 때는 어떡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차라리 거기 있었다라면 굶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은 숫자가 많고 적응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멈추려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숫자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인기 평판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성난 군중들과 같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오전 09:30~10:20	4층, 새가족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층, 드림실
미 정	4층, 새가족실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	본 당

■ 십일조

강예식 국영숙 김만수 박인순 송길선 송의자 오현애 이종구 이항실 장재욱 정영규 조옥순 조용순 채석진 최영식 최현숙

■ 감사헌금

강대의 강예식 강인환 문다윗 문성우 문예준 문운유 문지연 박춘주 송길선 윤호식 이덕수 정명희 채석진 하은미 황인순 무명

■ 선교헌금

강예식 송길선 이종구 정명희 정유진 조미애 조옥순

■ 일천번제

문다윗 문성우 문예준 문운유 박춘주

■ 주정헌금

김만수 윤정민 조근석 최경란 최영식 최희원

은 세계 코로나바이러스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거저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김덕진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일명성교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늘 사랑하시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말씀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신 직분 감사하며 가족의 평안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법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알리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주시고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오만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모든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맘의 묵상까지 들어주신다는 주님 부족한 죄인 속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전염병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 구	탁 구	바 독	족 구	등 산	불 링	실버합창
부장	장재욱	김교민	정성환	석용문	김학수	홍순자	채석진
총무	김병조	박인순	이종구	이승수	한상준	한경민	장복실